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권순화**

<차 례>

- I. 서론
- II.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 1. 국어 학습 지도로 살펴봄
 - 2. 일기 표현 분석으로 살펴봄
- III. 요약 및 제언

I. 서론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이 증가하고 있고,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은 학교 공간에도 점차 반영되는 추세이다. 1990년대 이후 급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진입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도 한국 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769명이고,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 재학생은 1,402명¹⁾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재학생 18,769명의 부모 한 쪽의 국

* 이 논문은 이중언어학회 제23차 전국학술대회(2009. 4)에서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shkwon@jnu.ac.kr

1)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재학생 수는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미등록 외국인 자녀 가운데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적²⁾을 살펴보면,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등의 순이고,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재학생 1,402명의 부모 국적은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 등이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출신인과 국제결혼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도 다양화되고 있어 향후 재학생들의 배경 국가에도 변동이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에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장기체류 후 귀국한 가정, 재외동포 중 역이민 온 가정³⁾ 등도 포함된다(권순희 2009). 다문화 가정의 종류에 따른 사용 언어 형태와 지도해야 할 언어 교육의 방향 및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에 대한 논의(권순희 2009)가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문제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중심으로 언어적 문제점을 살펴,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의 설계와 실천 방향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게 초점을 둔 이유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 형태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시급한 학교 현장 문제이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지도하는 학생은 보통 30명 내외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40명 학생이 한 반을 이루고 있고 농촌의 경우는 2~5명이 한 반을 이루는 학교에서부터 20~30여 명이 한 반을 이루는 학교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다수의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반에 1~2명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국어 사용 문제점을 간파하는

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가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보다 많다. 2007년 4월 통계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 13,445명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 수는 11,825명으로 88%가 한국 남자, 외국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아이들이다.

3) 지금까지의 다문화 가정 정책연구에서 제외되었던 가정의 형태이다. 논의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다문화 가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에서도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귀국자녀가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곤 하였다.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차이나 문제점은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심각하게 드러나기보다는 학습 부진의 상태로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지도하는 다수의 교사들은 그들에게 국어 사용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식을 못할 뿐이지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상의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층적인 접근을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면담, 관찰, 국어 학습 지도, 일기 표현 분석 등이 있다. 면담, 수업 관찰로 살펴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는 각각 권순희(2007), 조혜영 외(2007)에서 논의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멘토들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지도한 사례와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쓴 일기를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II.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1. 국어 학습 지도로 살펴봄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 자녀의 멘토링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전주교대 대학생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을 도왔다. 전주교대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후 22명의 멘토를 임명하였다. 임명된 멘토들이 전주시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 22명의 학습을 보충 지도하였다. 학습 지도는 일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씩 이루어졌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멘토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접

관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멘토를 수차례 직접 지도하고 멘토들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일지 기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국어 사용 실태를 교육 환경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차원에서 범주화 하되, 세부항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세부적인 범주항을 두어 기술하였다.

1) 정서 불안

전주교대 1학년 멘토 안윤희⁴⁾ 학생이 만난 전주○○초등학교 1학년 ○성현은 학교에서 정서불안 증세를 보였다. 수업시간에 자주 돌아다니고, 울고 소리치는 등 새로운 일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낯선 사람을 싫어하기도 했다. 지도교사 김○정선생님은 “○성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격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성현이의 증세는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감정 표출 방식을 고스란히 전해 받은 것이다. 한국어로 감정을 순화하여 표현하는데 자유롭지 못한 어머니를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제가 멘토를 처음 나가기 전부터 성현이의 특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알고 있었지만, 처음 저를 만났을 때부터 울고 소리치는 등 새로운 일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하고 낯선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특히나 담임선생님이 다정하게 타이르면 더욱 떼쓰는 경향이 커지고, 주변 아이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업시간에도 자주 돌아다니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이 격한 것이 문제라고 담임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학년 초보다 많이 개선된 상태라고도 해주셨습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초등학교 1학년 ○성현)

학교에서 이렇게 정서 불안 증세를 나타내었던 ○성현은 방학이 되어 집에서 멘토와 수업을 하면서 다른 모습이 되었다.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것, 동생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이 그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

4) 전주교대 학생의 동의를 얻어 멘토는 실명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는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었다. 낯선 문화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서적 불안을 줄여줄 교육 환경을 배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취학 이전에 사귀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한 반을 구성한다든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을 한 반으로 구성한다든지, 엄마 나라의 문화적 배경을 담은 글을 다루는 방식으로 교육 환경과 교육내용을 배려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멘토 수업을 했지만 방학을 하고서는 성현이가 학교에 나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무실에서 수업을 해야 했는데 그 곳에서는 성현이가 심리적으로 움츠려 드는 것 같아 제가 집으로 가서 수업을 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는 성현이의 긴장이 너무 풀어서 수업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았지만 오히려 집에서는 훨씬 안정감을 가졌고,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5). 동생도 함께 있을 때에는 함께 공부를 했는데 동생이 흥미로워하는 것을 보고 성현이도 덩달아 흥미를 느끼고 수업했습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초등학교 1학년 ○성현)

성현이의 가정환경을 살펴보면 성현이의 어머니께서는 일본인이시고……직장에 다니시는 아버지는 약간 불규칙적으로 나가시고요, 3살 정도 어린 남동생,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할까 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성현이는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이야기와 놀이는 주로 누구와 하는지’ 물어봤는데 엄마와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외의 어른에 대해서는 심리적 교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엄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등을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걸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버릇이 학교에서도 습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초등학교 1학년 ○성현)

5)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민우의 경우는 간혹 달랐다. 집에 이빠가 계실 때는 아빠가 자신을 옹호해줄 거라는 기대 등으로 학교에서 할 때보다 답변을 더 안하거나 집중을 안 하기도 했다.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정서불안이 나타난다고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지나고 인간관계의 신뢰가 회복되면 차츰 개선될 것이다. 물론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서불안은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저학년 학생이 10분 이상 집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습 집중은 습관화가 중요하므로 시간을 두어 연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Y초등학교 1학년 김미○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업이 시작되고 예상과는 다르게 김미○는 오랫동안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Y초에서는 3명의 멘티가 있었는데 모두 같은 시간에 전담실에 모여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3명 중에서 김미○는 제일 집중을 하지 못하고 다른 멘티가 수업을 받고 있어도 화장실을 가고 싶다거나 물을 마시고 싶다며 움직이는 일이 잦았습니다. 계획은 40분 정도 국어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진 뒤 나머지 시간에는 수학 수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김미○는 40분을 채 우기가 힘들어 25분에서 30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미○이에게는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수업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전주교대 멘토 조선영이 지도한 전주Y초등학교 1학년 김미○)

2) 학습 환경과 교우, 형제 관계

첫째 아이인가, 둘째 아이인가 등 형제 관계에 대한 가정 환경도 학교 적응에 영향을 준다.

교우관계에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었으며, 위로는 같은 학교에 3학년 누나가 있어 어린 민우를 잘 챙겨주고 있었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의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도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학습 효과가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특별 대우하여 따로 지도하기보다는 친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도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집에서 누나와 동생을 함께 지도한 사례이다.

민우와 나는 방학 동안에 민우 집에서 멘토링을 하기로 했다. ……민우 집에 찾아갔다. ……어찌된 일인지 학교에서 보였던 행동으로 보아 나를 보면 밝게 인사할 줄 알았던 민우는 나를 본척만척하고 민우 누나인 미나만 밝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민우의 모습에 나는 조금은 서운하기도 하고 실망도 했지만, 아직 어린 1학년 학생이니까 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친해지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학습이 하기가 싫었는지 학습을 준비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우는 스스로 학습의 의지가 없어보였다. 겨우 자리에 앉혀서 학습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민우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런 민우의 모습에 혼자서 30분 동안 달래도 봤다가 왜 그러냐고 질문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계속된 질문으로 민우가 말이 없어진 이유를 찾아냈다. 그것은 항상 같이 놀고 같이 공부 해온 누나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자기만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1학년 민우와 3학년 미나를 함께 수업하기로 조금은 힘든 결정을 했다. 그래서 미나를 불러 함께 공부를 하니 민우는 한껏 밝아지고 말도 많이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다른 학년인 민우와 미나를 함께 수업한다는 것이 조금은 벅차긴 했지만, 그래도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점점 아이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느껴졌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북초등학교 1학년 ○민우)

반대로 동생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성현이의 사례가 있다. 성현이는 동생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덜 받게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동생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동생보다 자신이 무엇이든 먼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수 있다. 하지만 동생을 돌봐주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경쟁할 대상으로 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의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

성현이는 동생에 대해 약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덜 받게 되는 것, 동생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못한다는 것, 자신이 동생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초등학교 1학년 ○성현)

3) 흥미도

일반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능력 향상 및 학습 지도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하지만, 정서적 안정감, 건전한 감정 표출 및 표현의 방법, 학습에 대한 흥미도 등 정의적 영역에 대한 교육을 수반한 국어 능력 학습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사례가 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이다.

성현이는 학습능력 자체에는 크게 결함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글자를 쓰는 순서라든지, 자음 등을 틀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다른 아이들은 많이 연습했을 때 그러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현이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흥미를 가졌오던 일 외에는 겁을 먹거나, 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이러한 일이 자신의 의사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〇〇초등학교 1학년 ○성현)

성현이의 어머니는 성현이의 올바른 습관, 학습 능력 등을 위해서 꾸준히 신경써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현이가 공부 자체를 너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무엇보다 흥미가 없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성현이 동생 성찬이는 책 읽는 것, 공부하는 것 그 자체를 정말 흥미로워했고, 언제든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현이보다 훨씬 밝은 모습으로 무슨 일에도 임했습니다. 성현이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수업에 무언가 흥미로운 놀이를 가져가서 그것을 하고서 나중에 공부를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특히나 성현이는 퍼즐맞추기, 낙서하기 등을 좋아했습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〇〇초등학교 1학년 ○성현)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지도는 학습자와 교사의 소통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학습자의 이전의 단계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유치원 시절의 생활이나 그 이전의 가정 환경 등을 파악하면 현재의 감정 상태가 왜 지금과 같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습자의 과거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때 현재에 대한 반응과 미래에 대

한 대비가 가능하다.

학습자의 과거에 이루어진 상처를 치료하려면, 교사가 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서 전문가로서 치료를 해 줘야 할 것이다. 학습자 동료 집단 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정서적으로 상처받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처지를 공감하고 도와주거나,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서 서로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말하기의 발음

국제결혼 가정의 가족 구성 형태나 본국적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음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외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혹은 부모의 본국적에 따라서도 발음상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 어머니(중국인, 조선족)가 맞벌이하셔서, 아이들은 함께 사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형제, 형제의 누나(4학년), 형제의 어머니, 외할아버지(조선족), 외할머니(조선족) 모두 한국어 발음이 약간 특이합니다. ……외할머니는 억양만 조금 특이할 뿐 한국어는 잘 하십니다. 형제는 중국에서 유치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해당 단어를 중국어로 저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말투…(전주교대 멘토 김수진이 지도한 Y초등학교 ○형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도 본국의 발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도 가족 구성원에 따라 외국인 발음이 뒤섞여 나타난다.

5) 읽기의 발음과 속도

어린 시절 부모가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어린 시절 아이들에게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준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어머니들은 여가시간의 문제, 발음 상의 문제, 독해력의 문제 등으로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주지 못한다. 이세연(2009 : 112)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정의 문식성 환경이 부족하다. 가정의 문식성 환경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이 책을 읽어 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 모두 “별로 없다”고 답하였다. 선생님이 주인공의 성격이나 상황에 맞게 글을 읽어 줄 때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 모두 집중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문식성 환경 부족의 결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책을 읽을 때 발음상 문제가 나타나고, 책에 대한 흥미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성현이가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은 글씨를 읽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수업보다 수학수업을 많이 좋아하였고, 글을 쓰는 것은 천천히 잘 하지만 그것을 읽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쓴 글씨를 읽어보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다고 등을 돌리는 경우도 많아서 틀리게 읽는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어려웠습니다. 겹받침 단어나, ‘회’라는 단어를 항상 ‘회’로 읽었는데 고쳐 말해주면 자신이 틀렸다고 하는 그 말을 매우 싫어했습니다.(전주교대 멘토 안윤희가 지도한 전주○○초등학교 1학년 ○성현)

읽기에 유창하지 못한 학생들은 스스로도 읽기를 잘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음이 틀릴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자신감이 없다. 그 결과 문장의 끝을 흐리게 발음한다든지, 큰 소리로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 발음이 틀린다는 것을 아는 것인지 저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 없게 말끝을 흐리면서 책을 읽었어요. 제가 “다시 큰 소리로 읽어 볼래?”라고 말하면 조금 나아졌다가 또 다시 발음이 흐려지고, 조그맣게 읽었어요.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못 고쳤어요...전반적으로 조금씩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요.(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북초등학교 1학년 ○민우)

읽기에 유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기 속도가 느리다.

글자를 쓰여진 그대로 읽으려고 노력하며, 느리게 읽는 편입니다. 맨 처음 1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풀게 했을 때, 30분 이상의 시간이 지나도록 5번 문제까지만 풀었습니다.(전주교대 멘토 김수진이 지도한 양○초등학교 1학년 ○형채)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수학 문제를 쉽게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요즈음 수학과목에서 서술식 문제 해결 상황을 읽은 후 식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발생하는 어려움은 수학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다.

수학문제 풀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문제읽기가 느리고 문제 자체의 해석이 빠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멘토인 내가 해당 문제와 풀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준 후 풀게 하면 문제풀이는 잘합니다.(전주교대 멘토 김수진이 지도한 양○초등학교 1학년 ○형채)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겹받침의 발음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화 책에 나오는 젊은이를 읽을 때 [절므니]라고 발음 대신에 [절느니]라고 발음한다.

겹받침의 경우 발음을 대충하는 것으로 봐서 겹받침 단어의 발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모르는 단어는 읽는 중간중간 질문을 많이 하였다. 정확한 읽기가 되지 않아 쓰기에서도 많이 틀리는 편이다.(전주교대 멘토 김수진이 지도한 양○초등학교 1학년 ○형채)

민우는 책을 읽을 때 ‘의’를 ‘우’로 발음하곤 했어요.(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

다문화 가정 자녀는 겹받침이 있는 어휘를 잘 발음하지 못한다. 또,

구개음화, 지음접변이 있는 단어 등에서 발음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세연(2009)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표 1〉 다문화 가정 자녀 발음 사례(이세연, 2009 : 116)

어휘	바른 소리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발음
절다	절따	절따
젓다	진따	진따
숫을	소슬	숫틀
굳이	구지	굳티
찢어	찌저	찌더

6) 어휘 사용

전체적으로 어휘력이 부족하다. 개념어, 추상어 등에 대한 어휘 능력이 부족하고, 상위어, 하위어의 관계 파악이 어렵다. 상상력을 통해 관련된 어휘를 알아맞히거나 연상어휘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해 주는 것이 좋다.

민우와 그림 상황을 보며 그 내용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찾고, 말해보는 활동을 자주 했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민우는 그림에 딱 보이는 사물들 중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단어를 찾아내는 수준에 그쳤다. 예를 들면 거실에 가족들이 다같이 앉아 있는 그림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생각나거나 상상을 해서 단어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민우는 그림 속에서 보이는 거실 벽의 시계나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엄마, 아빠, 누나, 아기 등 실제로 보이는 모습의 단어만 찾아내고, 내가 더 상상을 유도하고 생각을 유도해도 더 이상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즉, 시계 하나가 주어진다면 민우는 그것을 시계로만 알고 있지 그 시계로 인해 연상되는 벽시계나 빼꾸기시계, 혹은 시간이나 시계에 관련된 다른 단어들을 많이 알고 있지 못했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

끝말잇기 등에 미숙한 경우도 어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민우에게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어휘력이었다. 민우는 누나와

함께하는 간단한 끝말잇기도 잘 이어가지 못하였고, 학습지의 내용 중에 나온 그림 상황을 보고 다양한 단어를 찾아내는 활동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럴 때마다 과제를 내주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누나와 함께 찾아보는 활동도 하고 매 시간 끝말잇기나 말놀이들을 병행했고 그로 인해 처음보다 어휘력이 많이 늘어났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

양○초등학교 1학년 ○형채(남)의 경우도 어휘량이 부족하였다. 그림을 보고 해당 단어를 쓰는 학습 활동을 하였는데 표현하기 어려웠다. ○형채는 그림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 차리지만 표현 해야 할 해당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다. 예를 들면, 미용사, 축구공, 골프 등의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다. 개념어를 잘 생각해 내지 못하는 것이다. 대신 그림의 의미를 풀어 설명한다. 예를 들면, 미용사가 있는 그림을 보고서 ‘미용사’라는 개념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머리를 해 주는 사람’, ‘머리를 자르는 사람’ 정도로 표현한다.

또한 그림 자체가 의미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통 문화에 대한 그림이나 익숙하지 않은 그림을 보고 추론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탈춤, 남매, 형제, 닭다 등의 어휘를 생각해 내야 하는 그림이었는데 어휘를 잘 알아맞추지 못하였다.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에도 글자로 표기하지 못해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표기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것이다.

멘토 : 이진 뭐야?

민우 : 낸장교(‘냉장고’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약간 이상한 발음⁶⁾)

멘토 : 생각했네. 써봐

민우 : (못 쓰는 글자 많음)

생각을 했는데 못 쓰니까 활동지에 안 썼던 거예요. 집에서 어휘를 들어서 아는 것은 있을 텐데도 활동지를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

6) 익산 모 초등학교 임미성 선생님이 지도하는 초등학교 1학년 다문화 가정 학생은 “뚜껑”이라는 말을 할 때 “꾸땡”이라고 말하였다. 잘 고쳐지지 않았고, 반 아이들도 한 동안 “꾸땡”이라고 말하면 “뚜껑”의 의미로 알아들었다.

니 글자를 정확히 못써서 그랬던 것 같아요.(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

7) 자존감과 어휘 반응

자존감의 문제가 어휘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자신이 국내인이며 한국인이라는 자존감이 부족한 경우이다.

수업을 하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때였습니다. 미
○이와 ‘공부 잡는 어휘왕(출판사 : 스콜라)’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과서에 나
오는 어려운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그 날의 학습내용은 실내, 실외, 국내, 국
외, 내국인, 외국인 등 이러한 ‘내’와 ‘외’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
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배울 때였습니다. “내국인은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
는 사람입니다. …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미국인은 우리
와 다르게 생겼고 가까운 중국인과 일본인은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평소에 미○이는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스스로 읽고, 또 저에게 그것과 연관
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지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보고 봤었던 얼굴이 어두
워지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에 당황하였
고 혹시나 상처를 받았으면 어쩌지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모른 척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학생의 경우는 엄마의 이름을 쓸 때도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아빠 이름 쓰고, 엄마 이름 쓰고, 누나 이름 쓰는 활동이 있었는데 엄마가
태국에서 오신 분이라 이름이 낯설었어요. 탐궁칸(가명)을 민우가 쓰는 데
불편해하자 누나가 고쳐줬어요. 자존감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컴퓨터
화면에 엄마 사진을 넣을 정도로 온 식구가 엄마를 좋아했어요. 엄마 사진,
아이들 사진이 집 안에 많고, 아이들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아빠가 자주 집

7) 특정 출판사의 책을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출판물에 다문화 요
소를 고려하지 않은 서술 양상을 비판하는 것이다.

에 있었고 엄마는 집에 없을 때가 많았어요. 엄마가 무슨 일하시는지 아빠보다 더 바빴어요.(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북초등학교 1학년 ○민우)

8) 띄어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띄어쓰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띄어쓰기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기본적인 사소한 표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학년 학습자라는 것에 놀란다.

수업을 하면서 받아쓰기도 여러 번 하고, 글쓰기도 여러 번 했는데 그 때마다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왜 띄어쓰기를 안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띄어쓰기를 안 해서 불편한 적도 없었고 누구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띄어쓰기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시도했지만,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린이용 띄어쓰기 프로그램조차 너무 어렵게 설명이 돼 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를 띄어 쓰는 것 정도만 알려주었다.(전주교대 멘토 형보은이 지도한 효○초등학교 4학년 박○현)

9) 맞춤법과 발음 관계

글쓰기 두려움은 다문화 가정 자녀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똑같이 겪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다만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일상 언어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단어에서도 오류를 보인다거나 구어와 문어 차이에 따른 맞춤법 오류를 보인다는 점이 다르다. 유치원에 다닌 적이 없는 학생의 경우 맞춤법 오류가 눈에 띄게 많다. 놀이터를 ‘놀리터’로 쓴다든지 ‘나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웃고이셔’와 같이 쓴다.

(예1)

놀리터 가고 수영장도 가다

어린이 대공원 가고 영아과 가다
너 햄버어 먹은 적났니?

1학년 권○○학생의 글 (이세연, 2009 : 115)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가고 발래가고
누나는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학권에 가고
나는 공부가, 많이 있지만 다 할수있서.

1학년 김○○학생의 글 (이세연, 2009 : 115)

양○초등학교 1학년 ○형채와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의 경우도 자신이 발음하는 대로 쓰기 때문에, 맞춤법이 많이 틀린다.

〈표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표기상 오류 사례

○형채, ○민우(1학년, 남)의 잘못된 표기	올바른 표기	항목 비교
칠반	칠판	평음, 격음 차이 혼동
내모	네모	‘애’와 ‘에’차이 혼동
제비	제비	‘애’와 ‘에’차이 혼동
셋(넷)	셋(넷)	‘애’와 ‘에’차이 혼동
경찰간(소방간)	경찰관(소방관)	이중모음 표기 혼동
챙그랑	헹그랑	경음, 격음 표기 혼동
으자	의자	이중모음 표기 혼동
까마기	까마귀	이중모음 표기 혼동
빨릅니다	빠릅니다	용언 활용 혼동, 형태소 이해 부족
해습니다.	했습니다.	‘쌍시옷’ 생략
해서	했어	형태소 이해 부족, 선어말어미
바뻐어	바빠서	형태소 이해 부족, 발음과 표기의 혼동

맞춤법 표기 상 잘못도 문제이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발음 상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이중모음, 단모음의 차이, 평음, 경음, 격음의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 받아쓰기와 한글 구조 파악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받아쓰기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받아쓰기 능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읽기와 쓰기 능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우는 스스로가 수학에는 자신이 있으며, 다만 받아쓰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 읽기나 쓰기 학습을 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특히 민우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학생보다 이 분야의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는 매 시간 받아쓰기를 실시하고, 학습지에 실려 있는 모든 문장을 큰 소리로 읽어보게 하며 학습을 시켰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복초등학교 1학년 ○민우)

이계풍(2009 : 19)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남 무안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 14명의 받아쓰기 오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받아쓰기 오류 사례

번호	정답	오답사례
1	소정이는 학교가 끝난 뒤 엄마와 함께 양파 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끝나뒤(1명), 한께(1명), 함께(1명), 함께(1명), 양파밭에(1명), 양파밭의(1명), 주웠습니다(1명), 주엇습니다(1명)
2	소정이는 친구와 심하게 싸웠습니다.	신하게(1명), 심하게(2명), 심하게(1명)
3	선생님께서 어른 먼저 드린 후 저희들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름(1명), 든린후(1명), 저히(2명), 저이(3명), 들리후(1명)
4	동생은 공부방에 안 가고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공부방의(1명), 바다가로(1명), 바다가의(1명), 앳가고3명, 룰료1명, 놀료3명)
5	체험학습에서 많은 문화제도 보고 박물관도 견학을 하였습니다.	체엄학습(2명), 체헌학습(1명), 체험학습(4명), 많는(1명), 만원1명, 문화제5명), 목화제(1명), 무나지(1명), 문아제(1명), 갠악(1명), 게낙(1명), 제학(1명)
6	나의 가족은 항상 행복합니다.	나으(1명), 한상(1명)
7	나는 가끔 동생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각금(2명), 가끔(1명), 가곤(1명), 부꾸러운적(2명)

번호	정답	오답사례
8	나는 오늘 거짓말을 한 것을 반성하였습니다.	거짓말(2명), 깃진말(1명), 거진말(2명), 거짐말(1명), 방선(1명), 밧척하였습니다(1명), 방성하였습니다(1명)
9	아버지는 작지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남지(3명), 낫지(1명), 잡으로(12명)
10	소정이가 오늘 “야, 나 너랑 안 놀아.”라고 소리쳤습니다.	안 놀애(1명), 앓놀아(5명), 안노라(1명)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 한글에서 자음(닿소리)과 모음(홀소리)을 구별할 수 있다. 용어는 알지 못한다하더라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으며, 글자가 자음과 모음, 또 자음으로 된 받침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보통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이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구조라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그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알고 있게 마련이다. 보통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의 구조를 깨치게 된다. 특히 집에서 한글을 배우게 되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습득한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치기가 쉽지 않다. 또 한글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깨치는 것은 더 어렵다.

민우에게 발견된 문제점은 한글이 이루어진 구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바르게 쓰는 방법과 순서 또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ㄱ’이 ‘기역’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 한글을 바르게 쓰도록 지도하였고 획순이나 배열 순서도 익히게 하였다. ‘ㄱ’을 쓸 때 ‘丨’를 쓴 다음 점을 찍은 방식을 사용⁸⁾하였다. ㄷ, ㅂ, ㅍ 등의 획순이 많이 틀렸다. 리은은 한자 새을(乙)자를

8) 필자가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를 지도할 때도 이와 비슷한 사례를 흔히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앓’자를 쓸 때 ‘ㅇ’과 ‘ㄴ’을 먼저 쓴 후 ‘ㅏ’와 ‘ㅎ’을 나중에 쓰는 순서로 글자를 쓰는 경우가 있었다. 마치 한문 ‘朴’자를 쓰듯이 왼쪽 부분을 먼저 쓰고 오른쪽 부분을 쓰는 것이다. 한글은 자음+모음+자음의 순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현상이다.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는 획순이 외국인에게는 낯선 것이다.

쓰듯이 획순을 썼고, 비읍과 피읍도 자주 틀렸다. 틀릴 때마다 지우고 다시 쓰라고 했더니 한 학기 후에는 어느 정도 고쳐졌다. (전주교대 멘토 조명지가 지도한 ○북초등학교 1학년 ○민우)

11) 기타9) : 결혼이민자인 엄마의 언어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게서 조사나 어미 사용의 오류는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다. 일상 대화에서 조사는 보통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구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될 즈음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멘토가 찾아간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은 자녀들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나 어미에서 정확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조사나 어미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우리 민우 놀러가 다음에 다시 와야 해요.”라고 말하였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

미나는 엄마와 문자를 주고 받았어요. 엄마는 짧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낼 때도 조사를 많이 생략했어요. “엄마 집 가”처럼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짧게 문자를 보내곤 했어요.(전주교대 멘토 조명지)

이렇게 조사를 넣지 않고 문장을 만들거나 가끔은 문장의 순서를 바꾸기도 했다. 이 영향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존댓말 사용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우리 민우 선생님 맞췄?” 혹은 “우리 민우 놀러가 다음에 다시 와야 해요.”라고 말하였다……한국어가 민우 어머니에게는 모국어가 아니시기에 말씀하실 때 불완전한 면이 많이 보였는데, 그 중 하나가 존댓말 사용이었다. 말씀 형태의 기본은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끝말만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경향을 보이셨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지)

다음으로 발음 상 문제를 들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어머니와 통화를 할 때 말씀을 알아듣기 힘들었다. 바로 발음상의 문제였다. 발음을 끝까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흘리는 듯한 발음이어서 여러 번 다시 되물어 알아듣곤 했다.(전주교대 멘토 조명자)

2. 일기 표현 분석으로 살펴봄

멘토에 의해 간접적으로 관찰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문제점을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충 설명하고자 일기에 나타난 표현을 분석하였다. 일기는 일상적인 쓰기 능력과 국어 사용 양상을 꾸밈없이 드러내주는 자료이다.

분석 대상은 전북 S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자녀가 쓴 일기이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10권의 일기장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학생 본인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졌다.

1) 표현 늘려쓰기

일기장을 채워야겠는데 쓸 말은 없고 쓰는 방법이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표현 늘려쓰기’이다. 예를 들면, “오늘 나는 현장학습을 갔다. 어디로 갔냐면 김제 지평선 축제에 갔다.” 등의 표현이다. 이 표현은 ‘오늘 나는 현장학습을 갔다. 김제 지평선 축제에 갔다.’로 간단히 쓰거나 복문을 사용하여 ‘오늘 나는 지평선 축제가 열리고 있는 김제로 현장학습을 갔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묘사를 하거나 느낌을 쓰는 등 내용을 자세히 쓰기보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에 초점을 두는 현상이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나타난다. ‘어디로 갔냐면’ 등의 표현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표현 늘려쓰기’ 현상은 복문을 사용하여 글 쓰

는 능력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

(예4-1) 2007년 10월 5일

제목 : 현장학습

오늘 나는 현장학습을 갔다. 너무 기분이 좋다. 어디로 갔냐면¹⁰⁾ 김제 지평선축제에 갔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장수에서 김제까지 갈 때 영화를 봤다. 너무 재미있었다. (4학년 MKMS)

이 일기에서 MKMS는 “너무 재미있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너무 기분이 좋다.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등 반복 표현 역시 ‘표현 늘려쓰기’의 한 사례이다.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건은 무엇이었고, 본 것과 느낀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써야한다는 사고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재미있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학습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할 때 ‘누렇게 익은 곡식은 볼만한 경치였고, 흥겨운 노래는 들을 만한 것이었다’거나 ‘학교가 아닌 야외에서 놀 수 있어 즐거웠다’ 등의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다.

‘…했냐면’식의 표현은 MKMS의 언어 표현 습관인 듯하다. 다른 일기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난다. (예4-2)에서 “누가 놀러왔냐면”이나 (예4-3)에서 “무엇을 했냐면”의 표현이 그것이다.

(예4-2) 2007년 10월 12일

제목 : 친구

오늘 내 친구가 집에 놀러왔다. 너무 재미있었다. 누가 놀러왔냐면 은성 이랑 창준이랑 동환이가 놀러왔다. 그런데 엄청 큰 허스키 한 마리가 우리 집 강아지를 물어서 은성이랑 창준이랑 동환이랑 내가 돌을 던졌는데 우리 아빠가 개목줄 갔다(→ 가져다) 허스키를 때렸다.(4학년 MKMS)

“은성이랑 창준이랑 동환이랑”은 앞의 문장에서 썼으니까 반복하지 말고 하나의 개념어인 “친구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10) 이 표현은 일반학생의 경우 1, 2학년 때 나타나기도 하지만 4학년쯤에는 보통 사라진다(송천초등학교 소미영 선생님 의견).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어휘력의 부족으로 개념어와 추상어, 상위어와 하위어, 동의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있다. 다음 일기에서도 “너무 재미있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다.

(예4-3) 2007년 10월 14일

제목 : 이모집¹¹⁾

오늘 이모집에 갔다. 너무 재미있었다. 거기에서 무엇을 했다면 컴퓨터를 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누구랑 했다면 선미랑 했다. 너무 재미있었다. 기분도 좋다.(4학년 MKMS)

2) 이중 모음, 단모음 표기

단모음 ‘애’와 ‘에’의 표기를 구별 못하거나 이중모음을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다.

(예4-4) 2007년 10월 5일

나는 기분이 좋았다. 왜냐하면 현장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다. 너무 좋았다. 신이냐고 힘이 쏘았다. 또 김재 지평선 축제에서는 길을 잃어버렸다. 새벽이하고 영근이하고 찾았다. 그리고 찬호하고 신나게 놀았다. 노래도 불렀다. 새벽이는 모른척했다. 신이났다.(4학년 MCB D)

‘체험, 김재, 축제, 신나게’ 등의 표기를 ‘채험, 김재, 축제, 신나게로’ 하고 있다.

3) 통일성

2학년 OHHJ는 피동과 사동 표현을 적절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몇 단어의 맞춤법이 틀리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표현 면에서는 우수한

11) MKMS의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시집을 왔고, 어머니의 추천으로 어머니의 시촌도 같은 동네로 시집을 왔다. 그 덕분에 MKMS는 필리핀인 이모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다.

편이다. 현장 학습 장소인 전주문화센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4학년의 글 (예4-1)보다 표현이 더욱 다양하다.

(예4-5) 2007년 10월 5일

현장 체험 학습

오늘 아침에 관광버스를 탔다. 그리고 전주문화¹²⁾라고 써져있는(→써 있는) 데를 들어가서 1학년이 연필꽃이를 만든다고 해서(→연필꽃이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는 머를 돌려 보고(→?뭔가를 돌려보고) 널뛰기도 하고 굴렁세도(→굴렁쇠도) 했다. 그리고 1학년들 끝나서 2학년이 연필꽃이를 만들었다.(2학년 OHHJ)

(예4-6) 2007년 10월 7일

교회

오늘 교회에 갔다. 현희가 있었다. 교회 다 끝나고 현희네 집에서 놀았다. 놀다가 현희네 친척이 와서 친척 동생이랑 놀았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엄마한테(→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와서 우리 오빠 머리 깎으로 미용실로 가서 깎았는데 나도 앞머리를 깎았다.(2학년 OHHJ)

2학년 OHHJ는 (예4-5)와 (예4-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일어난 사건을 자세히 관찰하고 서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예4-6)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모든 사건을 기록하다보니 ‘교회’라는 제목 아래 통일성있는 글이 되지 못했다.

4) 발음과 맞춤법 오류 연관

(예4-5), (예4-6)처럼 2학년 OHHJ도 맞춤법이 많이 틀리는 편이다. 그러나 (예4-8)에서 2학년 MKIJ가 틀리는 맞춤법과는 차원이 다르다. OHHJ가 잘못 쓴 표기는 ‘깎다’와 ‘깍다’처럼 어른들도 가끔 틀리고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MKIJ는 방과후를 ‘방가후’로, ‘색종이’를 ‘색종이¹³⁾’로, ‘안갖고와서’를 ‘앗아고와서’ 등으로 잘못 쓰고 있다. 정확한 발

12) ‘전주문화센터’라고 써야 옳은 표현이다.

음 상의 문제가 표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려줬습니다’라고 써야 할 것을 ‘빌려줍니다’로 쓴 것으로 보아 발음 상의 문제를 추론할 수 있다.

(예4-8) 2007년 4월 5일

오늘은 은주랑 언니랑 나랑 방가후 해서 선생님이 색종이를 만드는데 틀렸
선 다사 색종이를 더 값고와야하는데 값아고와서 선생님이 빌려줍니다.(2
학년 MKIJ)

(예4-8)을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소통이 되도록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예4-8') → 오늘은 은주랑 언니랑 나랑 방과후 시간에 선생님과 색종이
접기를 했습니다. 종이 접기를 하는데 틀려서 다시 색종이를 더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색종이를 안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빌려줬습니다.

다음은 공부를 잘 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일기이다.

(예4-11) 2007년 3월 7일

오늘은 선미네 집에 놀러 갔다. 거기서 선미네 아빠가 구구단을 외우라고
했다. 선미가 구구단 외운 다음에 컴퓨터를 한다고 했다. 컴퓨터 끝나고 이
모가 치킨 사준다고 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다.(→됐다)(2학년 MLJS)

다른 학생들에 비해 맞춤법 오류가 덜 나타나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구구단이라는 어휘나 컴퓨터라는 어휘가 올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MLJS
의 다른 일기에서는 ‘컴퓨터’ 대신에 ‘컴터’라는 표기가 등장하기도 하지
만 위 사례에서는 컴퓨터를 쓰고 있다.

13) ‘색종이’로 표기한 것을 보면 색종이를 [색종히]로 발음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어의 ‘종이’는 중세국어에서는 ‘조히’처럼 ‘ㅎ’이 덧붙어 있었고 어르신들의 발음
에서 간혹 ‘ㅎ’이 덧나는 경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5) 혼종어

혼종어는 외국어의 간섭으로 원래 어휘가 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OPSW의 친구 해정(가명)이의 엄마는 필리핀에서 시집왔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인 해정과 친한 OPSW는 해정에게서 햄버거를 영어로 함바그스테킹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다. 이를 기억하고 일기에 기록하고 있다.

(예4-7) 2007년 9월 1일

오늘은 교정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가야 되어서 갔다. 그런데 친척 오빠도 같이 갔다. 그리고 햄버거도 먹고 했다. 그런데 해정이네 엄마가 햄버거를 함바그스테킹이라고 했다고 했다.(2학년 OPSW)

‘함바그스테킹’은 다문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혼종어(피진어, 크레올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어에서는 혼종어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학생들의 언어에서 혼종어가 등장하고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예4-12) 2007년 7월 9일

오늘은 수업 끝나고 급식을 먹을 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다. 그래도 난 급식을 다 먹었다. 느게 먹었지만 아무튼 급식을 다 먹고 나서 칫솔에 치약짜고 치카치카한 다음 입을 행구고 컴퓨터실로 가서 공부를 한 다음 학교 밖으로 가방을 메고 나가서 먼저 엄마에게 전화가 앞되어서 아빠께 전화를 하였다. 그래 집에 와보니 컴퓨터 아저씨가 와 있었다. 전원을 키는 것을 가져가셨다.(이하 한 문장 잘 안 보임) (2학년 MLJS)

(예4-12)는 다른 학생들의 글에 비해 맞춤법도 덜 틀린 글이다. MLJS는 다문화 가정 자녀 중에서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공부도 잘하는 편에 속하는 학생이다. 필리핀계 한국인이다. ‘컴터¹⁴⁾’의 표기는 영어식

14) 실제로 호주 NSW 대학생의 작문에서도(권순희, 2002 : 242 참고), 타운에 해당하는 단어를 톤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어 발음상 악센트의 영향이다. 예를 들면, “시드니에

발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혼종어가 될 확률이 있는 어휘이다. ‘전원을 키는 것’이라는 표현에서는 전라도 방언 발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아이들은 들은 표현 그대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6) 용언 활용

2학년 MKIJ는 ‘아팠습니다’를 ‘앓아습니다’로 아과서를 ‘앓아서’로 잘못 쓰고 있다. 한 단어의 표기법을 잘못 알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용언 활용으로 형태가 바뀌어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한다. 상황이 나 문맥에 따라 어휘를 쓸 때마다 유사한 오류가 드러난다.

(예4-9) 2007년 4월 6일

오늘은 학교에서 배가 앓아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배가 너무 앓아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방과후 했는데 또 앓아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배가 너무 앓아서 잠 잤습니다.(2학년 MKIJ)

(예4-9)를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소통이 되도록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예4-9') →오늘은 학교에서 배가 아팠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방과후 했는데 또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잤습니다.

7) 시제 표현

시제에 대한 표현은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상 2학년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 그만큼 일반 학생들도 시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학생들은 시제를 문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

서 중국 톤(→중국 타운)있어요 시드니의 중국 톤은 홍콩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 다음은 뉴톤(→뉴타운)입니다. 뉴톤의 분위기는 아주 이상합니다.”가 대표적 인 사례이다.

도 쓰기에서 시제 표현을 별로 틀리지 않는다. 구어 표현에서 틀리지 않고 시제를 잘 사용하기 때문이다.

(예4-10)에서 2학년 MKIJ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대사로 갔습니다”는 표현과 “대사먹고”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모호한 표현뿐만 아니라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의 사용에서도 오류가 나타난다.

(예4-10) 오늘은 은주랑 언니랑 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다으매 동네슈퍼에서 대사먹고 게임했다. 그래서 은주랑 언니랑 나랑 갔는데 게임해서 집에 도라와다.(2학년 MKIJ)

‘도라와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맞춤법과 시제 표현의 오류를 관찰할 수 있다.

(예4-10)을 맞춤법에 맞게 고치고 소통이 되도록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예4-10') → 오늘은 은주랑 언니랑 대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산 다음에 동네슈퍼에서 대사먹고(?) 게임했다. 은주랑 언니랑 나랑 갔는데 게임이 끝난 후 집에 돌아왔다.

8) 글에 나타난 관점과 가치관

글에 나타난 관점이나 가치관도 분석해 볼 수 있다. 일본인 엄마를 둔 4학년 BSYN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의 아이라서 일본인 외할머니가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일본에 가기도 하는 학생이다. BSYN은 다음 일기에서 일본인들이 모기약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예14-13)

불꽃놀이

오늘 외할머니께서 잤다주신 불꽃놀이를 했다. 동생과 엄마랑 했다. 불꽃이 타면서 연기가 나는데 모기약 냄새였다. 일본사람들은 여름에 불꽃놀이

를 하나까 연기를 모기약으로 개조한 것 같다. 일본은 신기한 나라다. (4학년 BSYN)

익산 모초등학교 임미성 선생님은 다문화 학생의 글에 필자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드러나는데 우리와 다를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결혼 가정의 고유한 가치관이 드러나기도 한다.

북한 통일 되면 기차를 놓겠다는 일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죠. “왜 기차를 놓으려고 해?”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고향 심양에 기차를 타고 갈려고요.”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엄마가 결혼한 지 7년만에 심양에 가보았고, 자주 못간다고 말했어요. 일기에 간혹 중화의식이나 제폐의식이 나타나기도 해요.(익산 모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임미성)

이상으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양상을 일기를 통해 살펴 보았다.

III. 요약 및 제언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멘토들이 시행한 학습 지도의 간접적인 관찰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쓴 일기의 분석으로 살펴보았다. 실제적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일반화보다는 현상을 직시하는 연구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문제점은 크게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해 살펴보면, ‘애’와 ‘에’의 구별, 겹받침 단어의 발음, 구개음화, 이중모음 발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반아쓰기와 일기 쓰기를 통해 살펴보면 형태소를 구별하여 쓰는 맞춤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발음나는 대로 쓰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에 자

신의 발음을 반영한 표기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휘 면에서 개념어, 추상어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이한 사실은 혼종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글에서 관점과 가치관의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자존감, 가정 환경, 교우관계,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도, 사고력을 키워주고 협동 학습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심층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재 개발시 교육 내용 선정에 지침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변별력 있는 교과서 구성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가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교과서나 교수 학습 내용의 구성을 위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문제는 기초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 분야의 후속 연구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9. 10. 31. 투고되었으며, 2009.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2), “수업 분석을 통한 한국어 교수법 연구”, 『선청어문』 제30집,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 권순희(2007),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상담 지도 사례”, 『국어교육학연구』 29, 국어교육학회.
- 권순희(2009), “이중언어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국어교육학연구』 34, 국어교육학회.
- 김갑성(2006), 한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진숙(2007),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 윤희원 외(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다언어 한국어교재<초급>, 교육인적자원부.
- 이계풍(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생활문 특징 연구, 광주교대 석사학위논문.
- 이세연(2009), 다문화 제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초등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한국어 능력 중급 수준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서울교대 석사학위논문.
- 장인실(2007), 다문화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워크숍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은주(2008),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학습자의 국어과 교수-학습에 관한 비교 연구”, 국어교육학회 제41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자료, 국어교육학회.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초록>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

권순희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이고 시급한 학교 현장 문제이다. 다문화 가정 자녀 중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학습 지도, 일기 분석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학습지도 분석은 멘토들이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지도한 사례를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관찰된 것이다. 또한 일기 분석은 학습 지도의 간접적인 관찰을 좀더 객관적인 자료로 보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적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일반화보다는 현상을 직시하는 연구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문제점은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한국어를 습득하게 되면서 발생하게 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면, 일상대화에서의 발음은 일반 학생과 비교할 때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는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 면에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눈에 띈다.

소리 내어 읽기를 통해 살펴보면, ‘애’와 ‘에’의 구별, 겹받침 단어의 발음, 구개음화, 이중모음 발음 등에서 문제가 있다. 받아쓰기와 일기 쓰기를 통해 살펴보면 형태소를 구별하여 쓰는 맞춤법에 익숙하지 못하고 발음나는 대로 쓰거나 발음이 부정확할 경우에 자신의 발음을 반영한 표기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휘 면에서 개념어, 추상어 표현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이한 사실은 혼종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글에서 관점과 가치관의 특이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순화된 국어 표현에 익숙하지 않아 감정 표현의 정서상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감정을 정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자존감, 가정 환경, 교우관계, 형제 관계 등을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의 학습 흥미도, 사고력을 키워주고 협동 학습을 통해 사회성을 키우는 데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을 심층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적 문제점에 대한 조사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개발시 교육 내용 선정에 지침 역할을 할 것이다.

【핵심어】 다문화 가정 자녀, 국어 사용 실태, 질적 연구, 학습지도, 일기 분석

<Abstract>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Use by Multicultural Students

Kwon, Soon-hee

It is a practical and urgent issue to understand linguistic problems of multicultural students.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use by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was surveyed in this study, because the propor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is high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To elucidate the linguistic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mentors for them were interviewed and their diary were analysed.

The linguistic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are occurred when they learn Korean through their mother, a marriage immigrant who is not proficient in Korean. The pronunci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does not cause public problem, when they become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ronunci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during daily conversation is not at issue comparing to that of usual students. However, reading and writing ability of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is low comparing to that of usual students.

The international marriage children are not good at the differentiation of “/æ/” from “/e/”, palatalization, and pronunciation of diphthong. By the analysis of their dictation ability and their diary, it was found that they are not proficient in differentiating morpheme and they write words according to pronunciation. They are not fluent in conceptual words and abstract words. Also they are absolutely lacking in the amount of vocabulary.

They cause emotional problems, because they are not familiar with

refined expression. They usually do not refine their emotion, and then express their emotion direc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teach them in consideration of their self-respect, home background, friend relationship, and brotherhood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the linguistic problems of multicultural students will be a guide to selection of content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for multicultural students.

【Key words】 multicultural students,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use, study lesson, diary analysis